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10.(목)	담당부서	통상국내정책과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이고은 과장(044-203-4120) 김종주 과장(02-2100-1373)	담 당 자	신홍섭 사무관(044-203-4122) 김민섭 사무관(02-2100-1379)

산업부, FTA 이행·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

- RCEP 발효(2.1) 계기, 산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FTA활용 지원정책 공유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2월10일(목) 한국무역협회에서 **「제17차 FTA 이행·활용 유관기관 협의회*」**를 개최하였다.

* 한-중·베·뉴 FTA 발효를 계기로 '15.12월 발족하여 매년 1~2회 개최

○ 이번 협의회는 2월1일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*)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** 산업계의 **애로사항을 점검**하고 **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**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,

*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: 아세안 10개국, 한·중·일·호주·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

○ **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**로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을 비롯한 한국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4개 유관기관, 그리고 12개 업종별 협·단체가 참여하였다.

< 제17차 FTA 이행·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>

◆ **일시/장소** : '22.2.10(목) 14:00 /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(화상회의 병행)

◆ **참 석 자** : (정부) 산업부(무역투자실장 주재), 식약처, 관세청
(유관기관) 무역협회, KOTRA, 대한상의, 무역보험공사
(협·단체) 철강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 등 12개 협·단체

◆ **발표안건** : ①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도 제고 (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)
② RCEP 활용 지원프로그램 안내 (무역협회, KOTRA, 대한상의)
③ '22년 FTA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(산업부 통상국내정책과)
④ 무역구제제도 소개 (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)

□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**RCEP의 주요 내용**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**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**하였다.

○ 먼저, RCEP을 통해서 자동차·철강·섬유·기계부품·농수산물 등 **상품**과 문화콘텐츠·유통·물류서비스 등 **서비스 시장**이 **추가 개방**된 점과,

- **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,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**를 통해 **FTA 활용의 편의성**이 높아지고, **지재권 보호·전자상거래 챕터 도입** 등 **규범 선진화**로 **우리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**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.

○ 또한, 우리 기업들이 RCEP 등 FTA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**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**이 시행하고 있는 **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안내***하였다.

* ①FTA 활용촉진 10개(132억원) ②FTA 해외시장진출 22개(4,449억원), ③산업경쟁력 강화 11개(1,745억원), ④한중 FTA 특화사업 3개(360억원) 등 총 46개 사업(6,686억원)

□ 한국무역협회, KOTRA,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**RCEP 등 FTA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**하였다.

○ 한국무역협회는 '**찾아가는 FTA 서비스***'를 비롯한 '**비관세장벽 애로해소****' 등 기존 사업들을 **확대 시행**하고, RCEP을 중심으로 **교육, 설명회, 홍보 등을 강화**할 계획을 설명하였다.

*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지원 (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8개 지역센터에 관세사 40명, 원산지관리사 11명 배치)

** 수출 상대국의 해외인증, 지재권 및 통관 업무 등에 대한 애로해소 지원

○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'**FTA해외활용지원센터**'의 **확충** 계획과 '**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**' 및 설명회 개최 등 **홍보계획을 안내**하였다.

* RCEP 회원국인 중국·베트남·인니·태국·필리핀·캄보디아·호주 무역관에 운영 중이며,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, 애로파악·해소 등 지원

** RCEP 주요내용 및 활용 절차, 타 FTA와 비교 안내 (KOTRA 홈페이지·무역관 등 통해 배포)

○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**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*** 및 **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**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**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**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.

* 수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(PSR) 판정 서비스 지원,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 검색서비스 지원(243개 물품)하여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(FTA특례고시, '22.1.1개정) 등

□ 산업계에서는 **섬유산업연합회, 한국비철금속협회 등**이 **인증수출자 제도,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**을 정부에 **건의**하였으며,

○ **기계산업진흥회**는 **한-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**를, **대한석유협회**에서는 **한-GCC* FTA의 신속한 추진**을, **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**는 인도의 **수입 사전등록제도** 및 **원산지 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**를 정부에 요청하였다.

* GCC(Gulf Cooperation Council) :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 등 6개국

○ 이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, 정부는 **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**에 대하여는 **바로 조치**하고, **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**은 **관련 부서·기관과 협력**하여 **추진**하기로 하였다.

□ **문동민 무역투자실장**은 **"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,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"** 하다고 하면서,

○ "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**협·단체, 유관기관,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"**고 당부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과 신홍섭 사무관(☎ 044-203-41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제17차 FTA 이행·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**

□ 개최 목적

○ RCEP 발효(2.1)를 계기로 정부, 유관기관, 업종별 협·단체 등이 모여 **FTA 이행·활용 관련 정보를 공유** 및 **업계 애로해소 등 점검**

* '15년 중·베·뉴 FTA 발효를 계기로 발족('15.12.11)하여 매년 1~2회 개최

□ 회의 개요

○ **일 시** : '22.2.10(목) 14:00~16:00

○ **장 소** : 무역협회 중회의실(51층) * 화상회의 병행

○ **참석자** : 정부부처, 유관기관, 업종별 협·단체 등 30명 내외

- (정부) **산업부(무역투자실장 회의주재)**, 식약처, 관세청
- (유관기관) 무역협회, KOTRA, 대한상의, 무역보험공사
- (협·단체) 철강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 등

○ **주요내용** : 안건발표* 및 업계 애로사항 토론

* ①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도 제고(산업부), ② RCEP 활용 지원프로그램(무역협회·코트라 등), ③ '22년 FTA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(산업부) ④ 무역구제제도 소개(산업부)

□ 진행 순서(안)

시 간		내 용	진 행
14:00~14:05	05'	◆ 모두 말씀	무역투자실장
14:05~14:30	25'	◆ 안건 발표	산업부 등
14:30~15:55	85'	◆ 업계 애로청취 및 토론	참석자 전원
15:55~16:00	05'	◆ 맺음 말씀	무역투자실장